# 2026. 12. 17
# 대한항공-아시아나 통합

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12월 17일, LCC 3사(진에어, 에어부산, 에어서울)은 2027년 3월 17일 통합됩니다. 마일리지 통합안은 승인되었으나 노선 시정조치 이행이 남아 있습니다.

01

### 마일리지, 10년 별도 관리

전환 시 탑승 1대1, 제휴 1대0.82. 보너스 좌석 실적 기준 상향

02

### 노선 의무 위반 제재 심의

청주-제주 불이행에 이행강제금, 고발 의견. 조사방해 고발 의견도

03

### LCC 3사, 통합 진에어로

12월 7일 임시주총, 국내 인가 거쳐 2027년 3월 17일 출범

# 합병 타임라인

- 2026.06.25 **국토교통부** 대한항공-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인가, 12월 17일 통합 목표
- 2026.08.21 **진에어, 에어부산, 에어서울 이사회** 3사 합병 승인, 합병계약 체결
- 2026.09.10 **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** 청주-제주, 전 노선 완화 요청 기각 의견. 조사방해 고발 의견
- 2026.09.14 **공정거래위원회** 마일리지 통합방안 최종 승인, 합병일부터 시행
- **2026.09.30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청주-제주 불이행, 괌 변경신청 심사보고서 제출, 심의 개시**
- 2026.12.17 **대한항공** 아시아나 합병, 통합 대한항공 출범 예정
- 2027.03.17 **진에어** 에어부산, 에어서울 합병등기, 통합 진에어 출범 예정

**다음 단계**
NEXT MILESTONE

12월 7일 LCC 임시주총, 공정위 전원회의 결론, 통합 진에어 국내 인가가 남았습니다.

# 합병 세부사항

| | |
|---|---|
| **인가**<br>APPROVAL | 국토부, 6월 25일 합병 조건부 인가.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, 해외 인허가 등이 남은 점 고려 |
| **합병비율**<br>RATIO |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 0.2736432. 대한항공 존속, 아시아나 자산, 부채, 근로자 일체 승계 |
| **절차**<br>PROCESS | 5월 14일 합병계약, 8월 12일 아시아나 주총 결의. 12월 17일 통합 출범 예정 |
| **제휴**<br>ALLIANCE | 합병 후 스타얼라이언스 탑승 어려움. 항공사별 발권, 탑승 가능일은 아시아나 공지 확인 |
| **의무**<br>DUTY | 시정조치 준수기간 2024년 말~2034년 말 10년. 공정위가 이행 점검 |

**12.17**
통합 대한항공 출범 예정일

**13개국**
해외 경쟁당국 승인

# 마일리지 통합 방안

| | |
|---|---|
| **별도관리**<br>SEPARATE | 합병일부터 10년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별도 관리. 기존 공제기준과 소멸시효 그대로 적용 |
| **전환비율**<br>CONVERSION | 탑승 1대1, 제휴 1대0.82. 언제든 신청하되 전량 전환. 10년 뒤 잔여분 자동 전환 |
| **회원등급**<br>TIER | 아시아나 5개 등급에 대응하는 등급 매칭. 전환 시 양사 실적 합산 재심사, 높으면 상향 |
| **보너스좌석**<br>AWARD SEAT | 10년간 2024년 양사 합산 실적 이상. 미주, 유럽, 대양주는 2023년 실적 이상 유지 |
| **사용총량**<br>USAGE | 2025년 사용량 대비 2027~28년 106%, 2029년 112%, 2030~36년 121%로 관리 |
| **복합결제**<br>MIXED PAY | 최소 500마일, 운임 30%에서 최소 100마일, 운임 40%로 확대. 2천마일 미만 상품 2배 |
| **감독**<br>OVERSIGHT | 이행감독위원회가 점검. 성수기 보너스 좌석 현황 매년 제출.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가능 |

**10년** 아시아나 마일리지 별도 관리

**121%** 2030~36년 사용 총량 기준

# 노선 시정조치

| | |
|---|---|
| **의무**<br>DUTY | 34개 노선 슬롯, 운수권 이전. 공급좌석 2019년 대비 90% 미만 축소 금지 |
| **과거제재**<br>PRECEDENT | 아시아나 운임 한도 위반 121억원(2025.8), 프랑크푸르트 좌석 위반 64억6000만원(2025.12) |
| **청주제주**<br>VIOLATION | 2024.12.12~2025.12.31 공급좌석 90% 미달. 심사관, 이행강제금과 3사 법인 고발 의견 |
| **괌노선**<br>AMENDMENT | 5개사가 수요 감소로 90%→70% 완화와 슬롯 반납 시 이행 인정 요청. 심사관 기각 의견 |
| **전노선**<br>2026 WAIVER | 중동전쟁발 유가, 환율 급등 이유로 2026년 전 노선 의무 면제 또는 완화 요청. 심사관 기각 의견 |
| **조사방해**<br>OBSTRUCTION | 2월 현장조사 중 직원 3명이 전산파일, 이메일 삭제. 심사관, 법인과 직원 3명 고발 의견 |
| **판단기준**<br>TEST | 사정변경은 2024년 12월 24일 변경처분 이후 발생분만 인정 |

### 완화 요청 공방

항공사들은 괌 수요 감소, 유가, 환율 급등 등 외부 요인을 들어 기준 완화를 요청했습니다. 심사관은 새로운 사정변경이나 전반적 수요 위축이 없다고 봤습니다. 결론은 전원회의 몫입니다.

# LCC 합병 세부사항

| | |
|---|---|
| **구조** STRUCTURE | 진에어 존속, 에어부산, 에어서울 소멸. 자산, 부채, 권리, 의무, 고용, 법적 지위 승계 |
| **합병비율** RATIO | 진에어 1 대 에어부산 0.2862684 대 에어서울 0.7501939 |
| **절차** PROCESS | 12월 임시주총(특별결의),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, 국토부 합병 인가 거쳐 3월 17일 합병등기 |
| **해외심사** OVERSEAS | 베트남 경쟁위 10월 2일 승인으로 해외 심사 완료. 국내 절차만 남음 |
| **운영** OPERATIONS | 예약, 발권 시스템과 모바일 플랫폼 단일화. 진에어 운항증명 기반으로 기단, 정비 일원화 |
| **기단** FLEET | 7071억원 규모 항공기 14대 리스. 에어버스 중심 재편, 인도 2026.11~2027.12 |
| **부산허브** BUSAN HUB | 김해 국제선 28개→33개 노선, 주 281회→339회. 고용 승계, 인위적 구조조정 배제 |

**2027.03.17**
통합 진에어 출범 예정일

**33 개 노선**
김해 국제선 확대 계획

# LCC 합병 추가 쟁점

구조와 일정은 정해졌지만 본사 위치, 합병비율 공정성, 국내 인가, 수익성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.

| | | |
|---|---|---|
| 01 | **본사 위치** | 대한항공, 국감서 확답 없이 부산 제2허브 육성 입장. 11월 말까지 관계기관 의견 수렴 |
| 02 | **합병비율** | 곽규택 의원, 에어부산 실질가치 미반영 지적하며 독립적 공정가치 평가 촉구 |
| 03 | **임시주총** | 12월 7일 특별결의. 매수청구 합계 2천억원 초과 시 합병계약 해제 가능 |
| 04 | **국내 인가** |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, 국토부 합병 인가 미완료(10월 기준) |
| 05 | **수익성** | 3사 상반기 영업손실 287억원. A321neo 10대 도입 완료 시 연 925억원 고정비 |
| 06 | **시장 재편** | 트리니티 SSC 전환, VIG의 에어프레미아 인수 추진 등 경쟁사 외형 확대 |

**"주요 거점 공항이 인천과 부산, 김포가 될 것"**

최정호 대한항공 부사장, 2026.10.0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

# 모니터링 포인트

**01**

- **출장, 법인 계약 재점검**
- 12월 17일 이후 마일리지, 제휴 변경 반영

**02**

- **공정위 전원회의 결과 확인**
- 청주-제주, 괌, 조사방해 결론과 공급 변동

**03**

- **통합 진에어 절차 추적**
- 12월 7일 주총, 국내 인가, 본사와 부산 노선

## 입법정책의 변화,
## 그 흐름을 가장 먼저 읽습니다.

ISSUE TRACKING — POLICY INSIGHT — CUSTOM REPORT



본 자료 및 정보는 입법정책 동향 파악을 위한 것으로 공식적인 법률 해석이나 자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